

# 주간건설 *Review*

466호 2016.12.23(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 락 처 : 02-771-7936

주 소 : (121-9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103

### ■ 업계 동향

- ▶ 한화건설, 꿈에그린 도서관 60호점 개관
- ▶ 현대산업개발, 김대철 경영관리부문 사장 선임
- ▶ 삼성물산, 광주 한사랑마을에서 '일일 산타' 봉사활동
- ▶ SK건설, 조기행 부회장 단독대표 체제 출범
- ▶ 롯데건설, 사랑의 롯데라면 나눔 후원 행사
- ▶ 현대건설, 급여끝전 모아 성금 3억7,00만원 기탁
- ▶ 포스코건설, 미얀마에 사랑의 물품 전달

### ■ 건설경제 일반동향

- ▶ 대형사 내년 사업계획 수립 동향
- ▶ 해외인프라 전 단계별 펀드 가동

###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 '입찰담합 3진 아웃제 강화 법안'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처리 보류
- ▶ 해외건설 지원 전담기구 설립 및 '이행성보증' 지원기금 조성 추진
- ▶ '보복사업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안, 국무회의 통과
- ▶ 미래건설정책 네트워크 출범
- ▶ 지진방재 종합대책 확정

#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16.12.17.(토)~2016.12.23(금)>

제466호 2016.12.23(금)

<업계 동향>

## ◆ 한화건설, 꿈에그린 도서관 60호점 개관

- 12월22일 한화건설은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서 ‘꿈에그린도서관’ 60호점을 개관하였음
- 이날 60호점 개관식에는 직접 철거와 붙박이장 조립, 페인트 칠 등에 참여했던 봉사단 30여명이 참석해 도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음



- 꿈에그린도서관은 장애인 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꿈에그린도서관 60호점 개관식에서 참석한 한화건설 직원과 관계자들 도서관을 만드는 사업으로, 한화건설은 2011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린내’에 꿈에그린도서관 1호점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5년째 봉사활동을 이어 오고 있음
- 한편, 한화건설은 지난 5년간 ‘꿈에그린도서관’ 사업을 진행하며 3만권이 넘는 도서를 장애인들에게 기증하였으며,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어린이재단, 지역복지관 등과 연계를 맺고 지난해 100회 이상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하였음

## ◆ 현대산업개발, 김대철 경영관리부문 사장 선임

- 12월22일 현대산업개발은 경영관리부문 사장을 신설하고 김대철 HDC자산운용·아이콘트롤스 대표를 신규 선임하였음
- 김대철 현대산업개발 경영관리부문 사장은 현대산업개발 기획본부장과 공사관리 담당중역 등을 역임하였으며, 그룹 전반 미래 성장 전략을 이끌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하였음
- 한편, 김재식 대표이사 사장은 기존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게 되며, 신임 김대철 사장은 재정·경리·인사·기획·홍보 등을 맡게 될 예정임



김대철 사장

## ◆ 삼성물산, 광주 한사랑마을에서 ‘일일 산타’ 봉사활동

- 12월21일 삼성물산 임직원 40여명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한사랑마을과 한사랑장애영아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음
- 한사랑마을과 한사랑장애영아원은 장애를 가진 아이와 성인의 재활치료와 특수교육을 위한 복지시설로 이날 산타분장을 한 삼성물산 직원들은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마술공연·인형극관람 등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
- 어,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교육용 컴퓨터를 선물해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음



‘일일 산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산타분장을 한 삼성물산 임직원

## ◆ SK건설, 조기행 부회장 단독대표 체제 출범

- 12월21일 SK그룹이 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조기행 SK건설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임명함에 따라 그 동안 투톱 체제로 운영되던 SK건설이 조기행 부회장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되었음
- 1981년 SK그룹에 입사한 조기행 부회장은 그동안 SK의 재무구조 개선 업무에서 특출한 성과를 이어왔으며, 특히 지난 2003년 SK 글로벌 사태 극복부터 최근 SK건설의 재무구조 체질 개선과 흑자 전환의 주역으로 주목받은 바 있음
- 지난 2011년 SK건설 경영지원 담당 사장 자리를 맡기 전엔 2008년 SK네트웍스 경영서비스컴퍼니 사장, 2010년에는 SK텔레콤 GMS 사장 등을 역임하였음
- 한편, 그 동안 조기행 부회장과 함께 SK건설의 쌍두마차로 불리던 플랜트 담당 최광철 사장은 수펙스추구협의회 사회공헌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음



조기행 부회장

## ◆ 롯데건설, 사랑의 롯데라면 나눔 후원 행사

- 롯데건설 샐롯데봉사단은 지난 12월20일 오후 서울 노원구 중계 104마을과 부산 동

구 매축지마을에서 ‘사랑의 롯데라면’ 나눔 후원 행사를 진행하였음

- 이날 롯데건설은 104마을과 매축지마을에서 홀로 사는 노년층과 저소득층 가정에 롯데 라면 1,500박스를 전달하였으며, 이번 나눔 행사는 지난 11월 실시한 ‘사랑의 연탄나눔’ 활동과 연계해 이루어진 것임



부산 매축지마을 주민들에게 롯데라면을 전달하고 있는 롯데건설 관계자

- 롯데건설은 대기업의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음

### ◆ 현대건설, 급여끝전 모아 성금 3억7,00만원 기탁

- 12월20일 현대건설은 임직원들이 올 한해 동안 급여 끝전을 모은 성금 3억7,3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였음
- 이번에 기탁한 성금은 현대건설 임직원 2,669명, 현대종합설계 임직원 384명 등 총 3,053명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매달 3,000원부터 3만원까지 급여 끝전을 모은 결실이며,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를 비롯해 종로구 도시미관 개선사업 등 국내·외 8개 사회공헌활동 사업에 사용될 예정임
- 현대건설의 급여끝전 모금 캠페인은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억여원을 모금하였음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회의실에서 성금 전달식을 개최한 현대건설 임직원들

### ◆ 포스코건설, 미얀마에 사랑의 물품 전달

- 12월16일 포스코건설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미얀마 달라섬 주민들에게 긴급구호키트 등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빗물을 이용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빗물정화식수시설도 기증하였음

○미얀마            달라섬(Dala Township)지역은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대우 아마라 호텔’ 건설 현장이 위치한 미얀마 양곤시 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평소 전력난이 심각하고 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등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음



○ 포스코건설은 달라섬 지역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구호키트 700세트와 신발,

미얀마 달라섬 주민에게 물품키트를 전달하고 있는 포스코건설 관계자

의류 등 생활용품 1100여점(약 600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빗물을 이용해 식수로 사용 가능한 ‘빗물정화식수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의 위생과 주거여건 개선에 기여하였음

○ 이날 전달된 긴급구호키트는 모포, 수건 등 12종의 생활용품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6월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이 손수 제작한 것들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하였음

#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16.12.17.(토)~2016.12.23(금)>

제466호 2016.12.23(금)

## <건설경제 일반동향>

### ◆ 대형사 내년 사업계획 수립 동향

- 건설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10대 건설사들은 “국내건설 수주 축소-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중심으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주요내용>

- 국내건설 수주의 경우 주택경기 하락세 및 공공공사 예산 축소를 감안하여 올해보다 수주목표를 하향 조정
- 10대 건설사 가운데 올해보다 분양물량 계획을 하향 조정한 업체가 6개사, 분양물량을 확대할 계획인 업체가 4개사로 집계됨

#### <10대 건설사 내년도 분양계획>

(단위 : 가구)

업체명		2016년 실적	2017년 계획	증감
분양물량 축소	삼성물산	10,187	9,017	-1,170
	포스코건설	16,079	14,527	-1,552
	대우건설	28,688	27,612	-1,076
	대림산업	23,355	15,309	-8,046
	GS건설	27,215	25,897	-1,318
	SK건설	5,049	4,071	-978
분양물량 확대	현대건설	15,988	20,852	4,864
	현대엔지니어링	7,246	7,620	374
	롯데건설	10,578	14,468	3,890
	현대산업개발	10,165	18,446	8,281

자료 : 건설경제신문 12/21일자 재정리

- 내년도 SOC 예산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공공공사 수주 목표 역시 보수적으로 수립하고 일부 대형사는 공공영업팀 조직을 축소
- 한편, 해외건설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으로 계획하는 가운데 올해보다는 다소 확대하는 추세인데, 이는 최근까지 매출 상승을 이끌었던 주택경기가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주택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수주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해외수주가 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 해외인프라 전 단계별 펀드 가동

- 해외인프라 개발에서 투자, 회수 등 단계별로 자금을 지원할 정책펀드가 속속 가동되면서, 2017년부터는 해외인프라 투자사업 전 단계의 금융지원 체계가 완비될 전망

### <주요내용>

#### □ 해외인프라 단계별 펀드 개요

펀드명	현황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사업개발단계에 투자하는 펀드로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li> <li>- 2017년 정부 예산에 10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60% 가량은 민간자금으로 충당 예정</li> </ul>
글로벌인프라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인프라 신규 사업(그린필드)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li> <li>- 3,500억원 규모의 1,2호 펀드가 있고 자금 소진에 대비해 최근 1,230억원 규모의 3호 펀드 설정</li> </ul>
외화인프라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인프라 개발 사업(브라운필드)에 대한 지분투자 펀드</li> <li>- 산업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이 5억달러 규모로 투자금 조성</li> </ul>

#### □ 주요 동향

- 2017년부터 해외인프라 투자사업에서 초기 개발단계부터 투자, 투자금회수까지 투자 사업 전단계의 금융지원 체계가 완비될 예정
- 사업개발 초기에 자금을 투입하는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가 2017년부터 정부와 민간이 매칭 방식으로 1000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정부와 민간의 출자 비율은 4대6 정도로 예상되며, 첫번째 단계로 국토교통부가 2017년 예산으로 100억원을 확보
- 현재 F/S 비용은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금융계약 체결 전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가 활동에 들어가면 사업주의 자금 확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융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글로벌인프라펀드(GIF)와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가 가동되는데, GIF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총 3500억원을 투자해 만든 해외 인프라 신규사업(그린필드) 투자 펀드다. 1호와 2호로 구분해 1600억원의 투자를 진행

했고, 자금 소진에 대비해 최근 3호 펀드를 조성하였음

- GIF 3호는 호주 태양광 사업에 3400만호주달러를 첫 투자했고, 터키 가지안텝 병원사업(3300만유로) 등으로 투자를 이어간다는 계획
- 외화인프라펀드는 기존 사업장(브라운필프) 투자를 위해 산업은행과 국내 금융기관이 5억달러 규모로 조성한 인프라펀드로 금융조달이 완료돼 프로젝트가 완공된 시점에서는 외화인프라펀드 투입
-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사업주는 일정기간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지만 해외 인프라 사업의 경우 투자금 회수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분을 팔고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를 원하는 경우 외화인프라펀드는 우량 사업장의 투자지분을 인수해 사업주의 투자금 회수를 돕는 역할
- 최근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800억원 규모의 '키암 코유라시아터널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펀드(키암코유라시아펀드)'가 대표적이며, 키암 코유라시아펀드의 투자로 SK건설은 유라시아 터널 사업의 투자금 대부분을 조기에 회수하게 됨
- 해외 인프라투자 사업 단계별 금융지원 체계가 속속 가동되면서 해외건설업계는 해외인프라 투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16.12.17.(토)~2016.12.23(금)>

제466호 2016.12.23(금)

## <건설산업 제도·정책 동향>

### ◆ ‘입찰담합 3진 아웃제 강화 법안’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처리 보류

- 12월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입찰담합 3진 아웃제 강화 법안’이 일부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처리 보류 결정
- 이에따라 국토부는 당초 법안에서 한 발 물러나 “10년 동안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 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는 내용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이날 종료된만큼 내년 1월 또는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될 전망

#### <주요내용>

#### □ ‘입찰담합 3진 아웃제’ 현행 규정과 개정 발의안 비교

현행	개정 발의안
-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건설업 등록 말소	-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u>기간 제한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u> 건설업 등록 말소

### ◆ 해외건설 지원 전담기구 설립 및 ‘이행성보증’ 지원기금 조성 추진

- 국토교통부는 12월6일 대림산업 등 EPC 건설사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12월13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글로벌 수준의 종합건설기업 육성 전담기구 설립의사를 공표
- 이는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주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건설촉진지원기구’를 설립하겠다는 제안
- 다만 해외 민관협력(PPP)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사 또는 전담기구 설립을 위해서는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
- ‘해외건설촉진법’ 개정 이후, 조직에 대한 기능과 규모, 예산 편성 또는 출자 등도 검토해 조직체계를 구체화해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해외건설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의 차별화 된 전략 마련도 필요
- 한편, 국토부는 중소·중견건설사의 해외건설 이행성보증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보증지원 확대 방안’ 연구 용역을 12월 23일까지 완료할 예

정

- 용역에는 그간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사의 공사이행능력을 검증하기 쉽지 않았던 점을 감안, 해외건설 이행성보증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을 설립하는 안이 포함
- 기금 재원은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기금에서 주기적으로 이행성보증 자원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보증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연속성을 갖고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 ‘보복사업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안, 국무회의 통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해 보복행위를 한 원사업자의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힘
- 개정규정 중 보복사업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규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의 경우 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규정과 벌점 경감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 <개정안 주요내용>

##### □ 보복 사업자에 대한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보복행위를 행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5.1점의 벌점 부과(누산벌점 5점 초과 사업자 공공분야 입찰 참여 불가 :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 보복행위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분쟁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거래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공정위는 보복행위 판단기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보복행위 중에서도 폐해가 커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경우에 한정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요건 확대

-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 다만, 면제대상이 되는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는 향후 공정위가 별도의 고시를 통해 결정

#####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사업자에 대한 벌점 경감기준 신설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사업자에 대해 0.5점의 벌점 경감 기준 신설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경우라 함은 원사업자가 ①발주자 및 하도급업체와 하도급대금 직불에 합의한 경우, ②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에

참여한 경우를 말함

□ 기술자료 정의 규정 개선

- 기술자료의 정의를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

◆ 미래건설정책 네트워크 출범

- 국토교통부는 12월19일 건설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합동 공동협의체 「미래건설정책 네트워크」 제1차 본위원회를 개최
- 이 날 회의에서는 건설협회 · 전문건설협회 · 기계설비협회 · 건설산업연구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등 6개 기관 합동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해 온 ‘건설시장 건전화 TF’에서 논의한 「건설시장 건전화 방안」이 발표됨
- 이 밖에도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 전략’과 ‘건설안전제도 이행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됨
- 「건설시장 건전화 방안」은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 “경직적인 시장구조 개선(업역체계 개편을 포함한 발주제도 개선 등)”와 단기 과제로 △부적격업체 근절 △건설업 자본금 요건 개선 △불법 건설업 등록증 대여 근절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적정 영업범위 검토 △건설공사의 불합리한 발주관행 개선 등의 방안을 담고 있음

<「미래건설정책 네트워크」 구성, 논의내용 및 향후 계획 등>

□ 개요

- 건설업 관련 각종 제도를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해 산·학·연·정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 협의체

소속	참석자
국토부(8명)	1차관(공동위원장), 건설정책국장, 기술안전정책관, 장관 자문관, 건설경제과장, 기술정책과장, 해외건설지원과장, 건설안전과장
학계 · 연구원(5명)	서울대 이복남 교수(공동위원장), 세종대 김한수 교수, 경희대 장훈기 교수, 카톨릭대 김명수 교수, 건산연 이상호 원장
건설업계 (회장 또는 부회장 8명)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건축사협회, 건설기술관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인협회

□ 구성 및 논의구조

-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구성되며, 실무위원회는 크게 △발주제도(업역체계 포함) △미래건설기술 △해외건설 △건설안전 등 4개 주제로 나눠 운영

- 실무위원회가 주제별로 합의안을 도출하면 본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

**□ 주요 논의내용 및 향후 계획**

- 향후 본위원회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및 투자개발형(PPP) 사업 활성화에 대응한 산업체계 개편과 신성장동력 발굴, 건설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건설엔지니어링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
- 국토부는 앞으로 본위원회를 두 달마다 1회, 실무위원회는 매달 1회씩 개최하여 이견이 없는 과제부터 합의하여 확정하고, 산업 체계 개편 등 중·장기 과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 지진방재 종합대책 확정**

- 정부는 12월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
- 금번 대책의 추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조기에 개정하고, 법정계획인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부처별 이행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

**<「지진방재 종합대책」 주요내용>**

**□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확대**

- 9.12 지진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모든 신규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 병원·학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

**□ 내진에 대한 공통 적용사항 제정**

-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한반도 지진특성에 맞는 안전한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내진에 대한 공통 적용사항을 제정

**□ 내진 보강 시기 단축**

-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당초 정부계획대비 63% 증가한 2조 8,267억원을 투자하여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0%까지 상향

**□ 내진보강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자기책임성을 강화

구 분	현 행	개 선(안)
감면대상	500㎡미만의 1·2층 건축물	기존 건축물 전체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제외)
감면비율	신축 10%, 대수선 50% (재산세 5년간, 취득세 1회)	신축 50%, 대수선 100% (재산세 5년간, 취득세 1회)